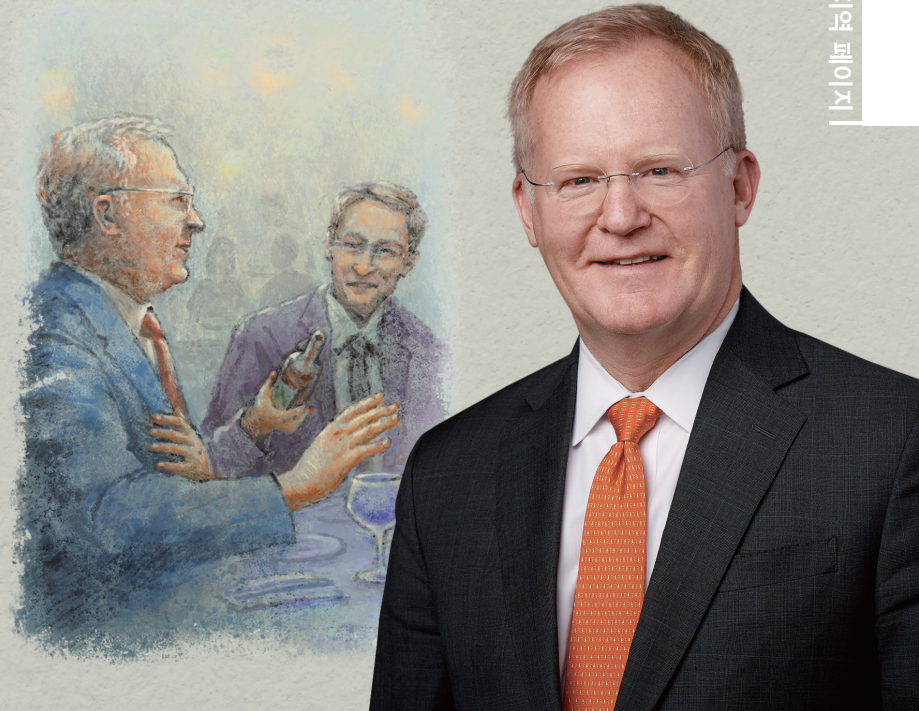


성약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제이 키모 에스플린 장로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지난 30여 년간, 저는 거의 매달 업무상 뉴욕시로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출장 중에는 보통 고객이나 직장 동료, 자문들과 함께 제가 즐겨 찾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들러 저녁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함께한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대부분 식사에 와인을 한 잔 곁들이곤 했지만, 저는 늘 물을 마셨고, 가끔 기분을 내고 싶을 때만 진저에일을 마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우리 회사 경영진들과 몇몇 은행 고위 임원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 저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탄산음료를 주문하자, 옆자리에 앉은 은행 임원이 방금 주문한 와인병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설명에 개의치 않고, 식사비보다 더 비쌀지도 모를 와인을 제 잔에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며,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왜 그런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와인을 절대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 왔느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놀라며 “언제 그런 약속을 하신 거죠?”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여덟 살 때 그 약속을 했으며, 50년 동안 지켜 왔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감탄하며 동석한 이들의 주의를 끈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키모는 여덟 살 때 와인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저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약속은 누구에게 한 건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과 성약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 가도록 세우신 길이며, 그것은 인생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 이들이 거할 땅을 만들리라.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 ... 그리고 자기의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더하여지리라.”(아브라함서 3:24~27)

옥스 회장님은 성약을 지키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이 연을 날리는 모습에 빗대어 설명하셨습니다. “... 연이 높이 올라가자, 소년의 손에 쥐어진 연줄이 바람의 작용으로 세계 당겨졌습니다. 바람의 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소년은 연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줄을 끊자고 했습니다. 현명한 아버지는 안 된다고 말하며 줄이 잡아 주고 있기에 연이 바람에 맞서 제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줄을 놓친다면 연은 더 높이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다가 결국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말 것입니다.”(델린 에이치 옥스, “그리스도를 따름”, 2024년 10월 연차 대회)

성약은 연줄과 같아서, 점점 약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이 유행을 좇아 이리저리 휩쓸려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인 우리는 성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 연결되어 있으며 그 성약은 우리를 그분들께 연결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여 그분들처럼 될 수 있게 해 줍니다.

저는 매일 성약이 제 마음을 담겨 주는 그 느낌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가 침례를 받을 때 맺은 성약과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또한 매주 일요일 성찬식에 참석하여 성약을 새롭게 하고, 성전에 참여할 때마다 성약을 되새길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성전으로 오십시오

서울 성전 오희근 회장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침례의 물가로 나아가 주님과 성약을 맺기를 바라시며, 침례를 받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합당하게 성전으로 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행하게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자신의 영성을 키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도움 없이는 의식을 받을 수 없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구원 의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성전은 신권 의식을 통해서 주님과 성약을 맺는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의식과 성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하는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상 성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침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그 후 3년 동안 많은 성역과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지상 성역의 마지막 날 저녁에 성찬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처음과 끝이 모두 신권 의식, 즉 침례와 성찬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미 대륙을 방문하셨을 때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신 일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리신 후, 니파이를 앞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권능을 주노니 … 너는 이 백성에게 침례를 베풀라.”(제3니파이 11:21) 이어서, 복음에 관한 많은

가르침들을 주시고, 성찬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다음 날에도 주님은 다시 오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후, 또다시 성찬 의식을 베풀었습니다.

모든 복음 의식은 주님과 성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침례와 성찬 의식은 와드에서 행하는 의식으로서 해의 왕국으로 이끄는 구원 의식이며, 성전 의식인 엔다우먼트와 인봉 의식은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곳인 승영으로 이끄는 의식입니다. 또한 엔다우먼트 의식은 우리에게 권능을 입히는 의식이며, 인봉 의식은 가족을 영원히 결속시켜 주는 의식입니다.

교리와 성약 84편 20절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주님께서서는 신권 의식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이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러한 이유로 선지자께서는 매년 연차 대회 때마다 여러분을 성전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최근 연차 대회에서도 이런 권유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사랑과 덕을 베푸는 역량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주님 앞에서 우리의 확신이 커집니다. 성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더 잘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러셀 엠 넬슨, “하나님의 면전에서 갖는 확신”, 2025년 4월 연차 대회)

성전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그분의 자녀로서 더욱 온전해지는 장소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묶으며,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자주,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집인 성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성도들의 간증: 성전의 축복



주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

청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 황윤혜 자매

나에게 성전은 늘 머물고 싶은 경건하고, 특별한 장소이면서,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그려 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집이다. 독신 때는 성전에서 결혼해 영원한 가족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남편이 선교 사업과 군복무를 마치길 기다렸고, 결혼 후에도 자주 성전을 찾았다.

심한 1급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첫째 아들을 키우느라 성전에 자주 갈 수 없었을 때에도 성전을 가기에 합당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살

았고 성전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에 감사했다. 그러나 아픈 아들을 위해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지나쳤던 남편은 결혼 후 줄곧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었고, 커다란 빚을 지게 되어 심일조도 낼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절망에 빠져 교회에 가는 것을 멈추게 되었다. 그렇게 나의 성전 추천서는 만료된 채 내 지갑 속에 고이 모셔져 있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나는 딸아이를 돕기 위해 대전에서 청주로 이사하면서 새로운 곳에 가면 교회를 다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흥덕 와드에 참석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 감독님과 접견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나의 소망을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며 심일조를 내면 1년 후에 성전 추천서를 받을 수 있도록 스테이크 회장님과 통화를 하셨다.

나는 남편의 빚을 갚으면서 조금씩 심일조를 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일

년이 지나 다시 성전 추천서 접견을 하였을 때 감독님은 흔쾌히 사인해 주셨다. 이우철 스테이크 회장은 접견실에서 지갑에 있던 만료된 추천서를 꺼내며 눈물을 흘리는 나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다. 스테이크 회장은 추천서 등록이 완료된 후 “황윤혜 자매님! 방금 전 성전 추천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성전에 자주 방문하셔서 필요한 인도와 영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밤 보내세요~”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그때의 편안함과 기쁨을 잊을 수 없다.

나는 2019년 1월 6일 다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후기 성도가 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도 계속 빛을 갠고 있긴 하지만 온전한 십일조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매달 최소 한 번 이상은 성전을 가고 있다.

나는 성전에서 맺는 성약들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상기하며 주님의 집으로 발걸음을 땀다. 성전에서 보내는 시간에 행복해하는 지금의 나는 충실하고 합당한 자질을 갖추는 것이 성약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커다란 특권이고, 축복임을 이해하고 계셨던 현명하고 사랑이 많으신 감독님과 그의 백성을 이끌고 도우셨던 스테이크 회장의 열쇠에 감사드리고 있다.

해가 지나 새로운 감독님, 스테이크 회장님과 접견을 마치고 나는 새로운 성전 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지갑 속에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내 영혼은 감사로 가득 차오른다. 이 교회는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온 마음을 다해 충실하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보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드린다. ■



할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서울 스테이크 녹번 와드
조이제 형제

나의 부모님은 교회 회원이 아니셨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2014년 7월 5일, 나는 서울 성전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부 인봉과 나와 부모님과의 인봉 의식을 받았다. 그날 성전에서 인봉을 준비하는 내내, 가슴이 뛰고 눈물이 흐르는 등 주님의 영을 강하게 느꼈다.

2025년 3월 2일, 녹번 와드에서 나는 그날의 경험을 회상하며 이렇게 간증했다. “이 경험은 주님의 영이 저와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봉 의식의 신성함을 깨닫게 해 주신 순간이었습니다. 즉, 이 경험은 ‘주님의 영의 임재’였습니다.”이 말을 전하는 순간, 나는 다시금 성신을 강하게 느꼈다.

다음 날, 나는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인 1956년에 돌아가셨다.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문화가 강했고, 후손을 번창시키기 위해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다. 할머니는 세 아들을 낳으셨지만, 그중 두 명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이 살아남아 결혼하셨다.

할머니는 며느리인 나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 같다. 그러나 어머니는 첫째부터 셋째까지 연이어 딸을 낳으셨다. 손자를 기다리던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할머니는 우리 조상들이 믿던 ‘위대한 영’에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시작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없으셨지만,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머느리가 손자 다섯을 낳게 해 달라”고 간구하셨다.

할머니는 한 명의 손자를 본 뒤 세상을 떠나셨고, 이후 어머니는 아들을 넷을 더 낳으셔서 결국 손자 다섯을 얻게 되었다. 나는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셨지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할머니의 기도는 단순히 후손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나는 성신이 강하게 임하는 것을 느꼈다.

내가 신권 축복을 받았을 때, 조상들이 나를 지켜보며 특별한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들으며 나는 강한 성신을 느꼈다.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그 응답의 일부로 내가 이 교회를 만나게 되었으며, 신앙을 갖고, 가족을 위한 성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성신이 더욱 강하게 임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나의 축복사의 축복문에는 계보 사업에 대한 축복도 기록되어 있다. 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직계 조상들과 어머니의 조상들의 족보를 구하고, 그분들을 위한 성전 의식을 받았다. 특히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대리 인봉 의식을 받았던 날 잠을 자던 중, 할머니께서 나에게 배우자 인봉을 해 주어 “고맙다”고 하시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나는 그날의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다.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내가 이 지상에 태어났고, 나를 통해 조상들이 성전에서 의식을 받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나는 성전 사업을 통해 조상들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다. ■



부산 성전을 기다리며



부산 스테이크 금정 와드
주영미 자매

2024년 10월 스테이크 회장님께서 접견을 요청해 오셨다. 김일수 회장님께서 “부산에 성전이 들어서면 성전 헌납식 때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주님의 영을 느끼고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스테이크에서 준비한 합창이 울려 퍼지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부산 스테이크에 합창단을 만드

는 것에 관하여 제의를 하셨다.

스테이크 음악 지도자로 봉사해 오면서 합창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지만 사실 혼자 하는 게 아니기에 엄두가 나질 않았었다. 합창단을 조직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 망설여졌지만, 스테이크 회장님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시며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 나는 결국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다.

이후로 내 머릿속에는 온통 합창단 생각뿐이었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동안 성전에 갔을 때는 해외 왕국실에서 주로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드리거나 내 주변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를 드렸었는데, 합창단을 결성하기로 결정한 뒤로는 스테이크 합창단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또 그렇게 만들어진 합창단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잘 가르칠 것인지 등에 관한 여러 기도가 추가되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는 어느새 평안함과 따스함이 스며들었고 용기가 생겼다.

남편과 이런저런 상의를 했고, 남편은 내가 궁금하게 생각한 점에 대하여 교회 지침과 경전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었다. 교리와 성약 25편은 선지자의 아내였던 에머 스미스에게 찬송가를 선정하도록 주셨던 계시인데, 나는 그 부분을 다시 꼼꼼하게 읽어 보았다. “나의 영혼이 마음의 노래를 기뻐함

이라,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되나니”(교리와 성약 25: 12)라는 구절을 다시 읽어 보며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믿음으로 합창단 조직에 박차를 가했다. 처음에는 31명의 합창단원이 모집되어 매주 목요일 저녁에 90분 동안 연습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3월 스테이크 대회 토요 모임과 일요일 모임에서 합창을 하고 난 후 합창단원이 되고 싶은 형제, 자매님이 더 생겨서 지금은 거의 40명 정도 모였다. 나에게서는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다. 각자 와드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라 합창 시간에도 아주 열심히 참여해서 정말 행복하다. 내가 많이 부족한 걸 알기에 더 잘 지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늘 주님께 기도한다. 늘 바쁘게 반복되던 일상이 합창단 지휘를 하게 되면서 여유를 갖게 되고 더욱 풍성해졌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전에도 더 자주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부름을 통해 해외 왕국실에 들어가기에 걸림돌이 되는 나의 주변을 하나씩 정리할 수 있었다. 나에게 주어진 부름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사업은 더 잘 완수되리라 생각한다. 요즘은 합창 시간이 몹시 기다려지고 부산 성전이 하루빨리 세워지길 소망한다. 우리 부산 스테이크 합창단의 찬송이 하늘에 울려 퍼질 수 있길 겸손한 마음으로 소망한다. ■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안내

청년 토론 선교사 10명



박재현 장로
—
서울 동 스테이크
춘천 와드
필리핀 산파블로
선교부



박준서 장로
—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
서울 선교부



서만혁 장로
—
서울 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부산 선교부



이한민 장로
—
서울 서 스테이크
청라 와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선교부



조보민 자매
—
순천 지방부
광양 지부
서울 선교부



최성용 장로
—
서울 남 스테이크
송파 와드
부산 선교부



황경선 장로
—
전주 스테이크
완산 와드
부산 선교부



황지영 자매
—
전주 스테이크
완산 와드
부산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변경

포항 지부 | 지부 회장
최원식 형제 (전임: 이준규 형제)

동대문 와드 | 감독

이슬기 형제 (전임: 장효성 형제)

여러분의 간증과
아이디어를
환영합니다.

- 기사 제보 및 기타 문의(관리 본부): 02-2232-1441(전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카카오톡 채널 검색)
- 배부 센터: 080-238-8000

- 교회 한국 홈페이지: kr.churchofjesuschrist.org
- 교회 뉴스룸 한국 페이지: news-kr.churchofjesuschrist.org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fb.com/churchofjesuschristkor
- 교회 공식 인스타그램: @churchofjesuschristkor